

그때 그 사건을 아시나요?

본고는 1960년대 이후 양계업이 태동하면서 현재에 이르기 까지 양계업계의 발전과 함께 벌어졌던 각종 사건들을 월간양계에 게재된 내용을 중심으로 모아 본 내용이다. 이 번호에는 양계산물 수출입과 관련된 내용을 게재한다.

- 편집자주 -

고려인삼계정 월남에 수출

1974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인삼과 닭고기를 섞어서 가공한 '고려인삼계정' 2,000정을 월남(베트남)에 처녀수출 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수출업체는 유한양행으로 동남아인들의 기호에 맞게 가공하였으며, 국내의 삼계탕을 간접적으로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1974년 5월호)

후라이드치킨 국내 첫선

1975년 한국켄터기하우스(주)에서는 미국의 켄터기후라이드치킨사와 상담을 마치고 통닭구이용 기계를 수입, 종로구 선린동에 10월 15일 개관식을 가지면서 국내 처음으로 후라이드 치킨을 선보였다. 이후 외식산업에 관심을 가지면서 KFC, 맥도날드, 파파이스 등이 국내에 상륙하면서 다양한 닭고기 외식문화를 이끌었다.

홍콩과 사우디아라비아에 계란수출

1981년 국내 계란가격이 하락, 9천만개의 재고가 쌓이자 이를 회복시킬 목적으로 싼 가격에 홍콩과 사우디아라비아에 81만개의 계란을 수출하였다. 그 당시 각종 매스컴을 통해 오르내리면서 큰 화제가 되었으며, 그 결과 20일 동안 대란 값이 개당 13원까지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계기로 국제 계란시장 동향을 파악하게 된 점이 큰 수확으로 평가되기도 하였다.

당시 계란가격은 대란 기준 33원으로 나타났다.(1981년 5월호)

닭고기 수입자유화 조치

정부는 1983년 7월 1일부터 그동안 185g이하의 종계에 한해서 수입을 허용해 오던 것을 이를 제외한 모든 닭에 한해 수입자유화조

치를 단행했다. 이는 닭고기 수입에 대한 실질적인 수출입 허용을 의미하였지만 닭고기 수입은 1994년 절단 신선·냉장 닭고기가 개방되고, 1995년 냉동닭고기 수입이 전면 개방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1983년 6월)

육용 실용계용 종란 첫 수입

1994년 여름 무더위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양계업계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로 인해 병아리 공급에도 차질을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H계열사에서는 9월부터 약 800만개에 달하는 실용계 종란을 유럽에서 처음으로 수입하여 부화된 병아리를 계약사육농가에게 공급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해 일반 종계업자들은 종란수입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기도 하였다.(1994년 12월호)

닭고기 수입권 최초 공매

UR협상의 일괄타결로 인해 최소시장접근 방식에 따라 1995년 3월 9일과 28일 축산물유통사업단에서 닭고기 수입권 공매가 처음으로 이루어져 양계인들을 긴장시켰다.

당시 7,700만톤 중 1차 공매시 3,000톤, 2차시에 4,700만톤을 각각 공매하여 절단육은 전량낙찰, 미절단은 일부 유찰되었다. 이 때부터 국내에 닭고기가 본격적으로 수입되기 시작하였다.(1995년 4월)

계란 태국으로부터 32만개 수입

1999년 3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원란형태의 계란 32만개가 태국으로부터 수입되면서 채란농가들로부터 큰 비난을 받았다. 당시 한국계란유통협회를 중심으로 한 상인들의 주도하에 수입된 계란은 2, 3월 난가가 100원 넘게 형성되면서 초래된 현상으로 수입가격은 C&F 도착가격으로 40원 선에 수입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생산자들은 양계업계가 어려운 시점에서 수입을 하는 것은 망국행위로 규정하고 수입 이후 수입업자를 찾아가 강력 항의를 하는 일도 있었다. 당시 물량이 많지 않아 채란업에는 당장 큰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수입자유화 이후 언제든지 계란이 수입될 수 있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1999년 4월호) **양계**